

禪의 실참-이론으로 '도올비판'

변상섭씨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도올 김용옥씨의 불교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책이 나왔다.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정적 시각들이 표피적으로 던지는 불만소리였다면, 소장 불교학자 변상섭씨(동국대 불교학연구소장)가 펴낸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시공사)는 선(禪)의 실참과 이론으로 중무장한 논사의 비장한 진검승부라 할 수 있겠다.

김용옥씨를 비판한 글들이 더러 있기는 했지만 한 권의 책으로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씨는 "우주적 정신을 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가 쓴 <벽암록>에 대한 해설과 <금강경강해>를 읽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 동기를 밝혔다.

글쓴이 변상섭씨는 대학 졸업 후 3년간의 수좌 생활, 그리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선학을 전공하며 아함·유식·종관학의 논서들을 공부하고 동국대 역경원에서 <설대승론석>을 완역한 소장 불교학자이다.

변씨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김씨의 불교관을 보여주는 <화두(話頭), 혜능과 세익스피어>와 <금강경 강해>. 변씨는 이 두 권의 책을 낸 김씨에게 "어째서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바로 "애초부터 선(禪)에 대해 전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도올의 불교사상 비판을 시작한다. 이 책에서 도올 비판은 크게 불교와 선에 대한 무지, 잘못된 번역 두 가지이다.

가장 먼저 비판의 초점을 맞춘 대목은 화두 해설이다. 변씨는 대표적 저서인 <화두, 혜능과 세익스피어>라는 책을 도대체 왜 썼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화두의 본질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는 "화두란 의심을 일으켜 모든 번뇌와 망상을 끊고 큰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선가에서는 해설을 금기시해 왔다"며 "김용옥씨가 <벽암록>을 해설하고 있는 것은 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다. 즉 화두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예로 <벽암록>을 살한 원오 극근 선사사의 제자 대해 종고 선사는 스승의 역작을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 이는 공언히 말꼬리에 붙들려 해매는 후학들이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씨가 최초로 <벽암록>을 해설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경축, 선종사상 최초의 어리석은 바로 출현"이라고 광고하면서 스스로 기뻐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비판의 또 다른 초점은 번역의 문제다. 변씨는 김씨가 <금강경 강해>에서도 못지 못한 엉터리 번역을 쏟아 놓았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번역은 불교와 선에 대한 무지와 실수가 합쳐진 결과?"이라는 것. 경전을 성경처럼 장과 절로 나누어 번역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

석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는 불교의 대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 그는 도올은 군더더기에 대해서는 잡다한 설명을 길게 늘어 놓으면서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개불가취불가설 비법비비법(皆不可取不可說 非法非非法)'이 무슨 뜻인지 한 마디 설명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도올이 이 부분에 침묵하는 이유를 그는 법의 개념을 모르고, 불교의 인식이론인 이체(세속제·승의제)가 무엇인지도 모를뿐 아니라, 비법과 비비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이밖에 변씨는 방(棒)과 함(喝)이 선사사의 유치하고 치사한 짓이라고 매도하



이 책은 김용옥씨의 불교관에 대한 비판의 엄정함 말고도 값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여나, 스타급 학자를 비판했다는 화제의 대상으로만 변씨의 작업을 바라보면 비판의 기본 전제인 불교 본질에 대한 투철한 이해라는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아함, 유식, 종관학 등의 논서들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불교의 대의를 깊이 있게 파악하게 하는 훌륭한 불교 입문서로서의 격도 갖추고 있다. 한편 글쓴이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www.buddha-mind.net)도 개설했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화두, 혜능과...' '금강경 강해' 엉터리 번역과 해설 선에 대한 무지의 결과

거나, 열반이 죽음이다. 선은 반불교다 등의 언사는 불교 불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과 분석을 하고 있다.

"똥대가리가 커서 큰 스님이나? 나는 풍숫간에서 불경(佛經)을 읽는 취미가 생겼다.

방(棒)과 함(喝)같은 어색하고 유치하고 치사한 짓..."

김용옥씨가 이렇게 삼보를 능멸하고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난도질하여도 불교계에서는 그 동안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입각하여 김용옥씨를 비판하는 책을 내게 되었다. 그런 한편 불제자들은 김용옥씨를 비난하기에 앞서 반성해 보는 기회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현대인들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 결과, 아직도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의 바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김용옥씨는 불교계를 마치 일차 없는 빈 산(無主空山)인 줄 알고 삼보를 능멸하는 언행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토록 어처구니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도하고 있는데도, 학계와 승가의 일각에서는 김용옥씨의 무지(無知)를,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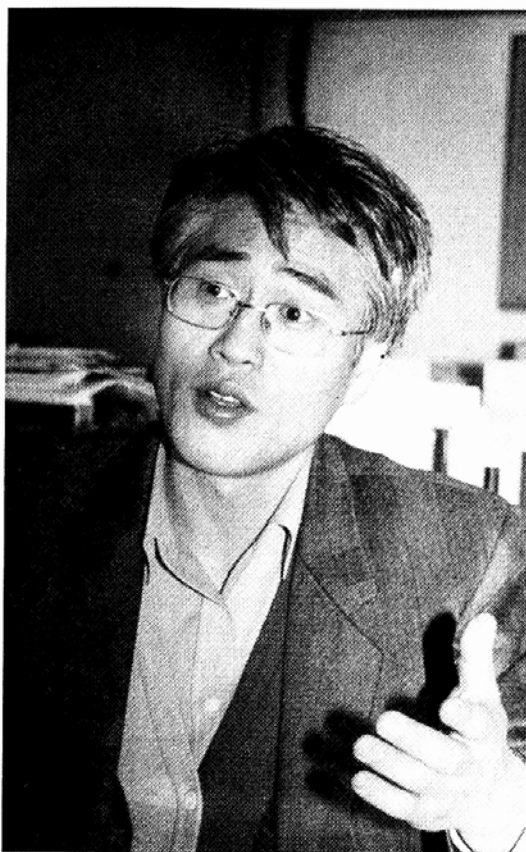
저자가 말하는 '책으로 못다한 얘기'

'삼보능멸 참을 수 없었다'

아말로 도적놈을 자기 자식인 줄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아닌가. 이제라도 우리는 불법을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배우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 21세기는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사회라고 한다. 인류의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자아 상실이라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고 마음을 닦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마도 진정한 인간구원의 메시지로 새롭게 인식되리라 확신한다.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강의가 이토록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동양의 사상이 현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이념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요즈음 서양에서도 선(禪)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노자사상에는 불교에서처럼 확고한 인식론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닦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번뇌하고 망상하는 이 마음의 움직임만 끊으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자, 이제는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가자. 이 마음 하나만 닦으면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마음을 닦는 공부로 진실로 열심히 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라는 책을 내면서도 김용옥씨를 비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였다. 선을 닦는 이유가 무엇인지, 화두란 어떻게 참구해야 하는지, 교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체(二諦)가 무엇이며, 열반이 무엇이며, 법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쉽고 바르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책의 성격상 비판의 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다보니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릇되게 전한 것이 있었다면 그 죄업을 어디에서 용서받아야 할지... 두렵고 조심스런 마음에 내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김용옥씨가 저지른 잘못은 충분히 바로잡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실서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제자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내 마음 하나만 깨치면 곧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든다는 것이 아닌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통일 염원 詩로 형상화

고은시집 '남과 북'

"꿈속에서 전작시집 남과 북 구상을 자세히 했다. 남과 북에서 함께 읽히는 시집이기를 바란다." 1999년 4월30일 금요일, 고은 시인의 메모다.

고은 시인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통일을 염원하는 시들로 엮은 전작시집 <남과 북>(창작과비평사)이다. 이 시집은 1998년 여름, 보름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느낀 감회를 노래한 것들이다. "저녁"을 서시로 하고 있는 이 시집은, 남과 북의 수준 낮은 정치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뼈아픈 자각인가 하면, 비정치적인 조율과 문화로서의 융합을 지향하는 분단 이전의 노래이기도 하다. "시와 꽃 따는 여인들" "삼수" "연감자곡수"와 같은 시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또 이 시집은 분단 이후 남쪽 시인이 북쪽의 정서를 시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은 시인은 "현재 상황에서 남북체제를 아우르 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금만 비켜서기로 한다면, 남북이 함께 살아온 장구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이집일이 아니라 통일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관조스님 사진집

'불단장엄' 출간

불단은 예배대상인 불상이나 탱화를 모신 곳으로, 법당 안에서 가장 성스럽고 존귀한 자리이다. 이렇게 보면 불단은 가람건축에서 핵심이 된다. 불단의 장엄은 신앙심의 또 다른 표현으로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귀중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불단에 새겨진 다양한 조각들을 사진으로 담은 <불단장엄>(미술문화)은 눈여겨 볼 만하다. 이 사진집은 사진작가 관조스님이 펴낸 '우리문화보기' 다섯 번째 권으로 보물 제562호 법어사 대웅전을 비롯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통도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정동사 대웅보전 등의 불단 사진과 도판 해설이 자세히 실려 있다. 또 불단의 기원과 전개, 형식과 유형 등에 대한 이기선씨(미술학자)의 논문이 실려 있어 불단 장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해 준다. 값 3만5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사인물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용-해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2	금강경 강해	김용옥	통나무
3	오무막 편지	법정	이레
4	노자와 21세기(하)	김용옥	통나무
5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	효림
6	오계이야기	일타	효림
7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타	불교시대사
8	부처님께 재물 빌면	스티븐미켈	여시아문
9	선시	지현	민족사
10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변상섭	시공사

도서 안내: (02)737-0695

티벳 '사지(死者)의 서(書)'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 ▶ CD(3장): 정가 50,000원 → 30,000원
- ▶ TAPE(1시간 30분 테이프 2개): 정가 28,000원 → 18,000원



이 오디오 북은, 티벳 '死者의 책'을 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배경 음악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언어로 녹음되어 있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죽음의 상태에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 주며, 올바른 자궁을 선택하여 환생하는 방법까지 알려 주고 있다.

'오소 삶과 죽음의 과정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진, 전 세계 6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바르도

배경 음악: 신미야기(Miyagi) / 번역: 최정민 / 목소리: 김두식

바르도에 대한 오소의 강의 테이프와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90분, 5,000원.

오소는 이 테이프에서 바르도에 대한 설명과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르도 상태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은 꿈의 끝이다." - 오소 -

행사 기간: 2000년 5월 31일까지(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도서출판 향긋꽃 :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책입니다 ·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 치료법

첨단 의학의 틈새를 파고드는 놀라운 민간 요법. 수천 년 전의 민간요법의 비밀이 담긴 책. 사상 제1회 쉽게 알아내는 법과 건강을 지키는 효험법. 가정에 있어야 하는 상비요법 7가지 등 다채로운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남산 스님 지음 / 신국판/12,000원

내 병은 왜 낫지 않을까?

좋은 인연 맺는 법

현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남산스님의 산중 에세이!

골리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 속에는 세상사 분별과 갈등이 없는 대자유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남산 스님 지음 / 신국판/7,500원

소다가다 만난 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파스요법'의 남산스님이 쓴 죽비같은 에세이!

한 스님의 좌충우돌로 맺어지는 인연의 야단법석.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 교만과 독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든 현대사회에 진실한 자아를 찾아주는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남산 스님 지음 / 신국판/7,500원

남산스님의 파스요법 비디오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파스를 이용하여 자기 몸 속의 질병을 다스리는 21세기 대체의학·각종 호흡기질환에서 부인과 질환까지 파스 한 장이면 족! '남산스님의 파스요법'이 드디어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판매공급처 :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 값 20,000원

※ 관절염, 류머티스, 신경통,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는 남산스님께 연락 주시면 무료로 약을 보내드립니다. - 방문사절, 전화상담 - 0502)988-6565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전화 3471-5008 팩스:3471-6575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